무안군과 장흥군이 낙지산업의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안읍 터미널 인근에 문을 연 '갯벌 세발낙지 거리〈사진 왼쪽〉'와 겨울철에도 잡히는 장흥낙지.

무안낙지·장흥낙지 브랜드 경쟁

맛과 명성 앞세워 지자체별 명품화 나서

■ 무안군

'무안낙지' 공동브랜드
로고·캐릭터 상표등록
'낙지거리' 명물로 등장

무안군과 장흥군이 경쟁적으로 낙지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11월 '무안갯벌낙지'의 공동브랜드 마크·로고·캐릭터 등을 개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는 등 무안갯벌낙지 명성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판장을 개설하고 갯벌낙지 상표를 색인한 전용 포장재 사용 및 실명제 스티커 보급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에는 무안읍 터미널 인근에 '갯벌 세발낙지 거리'를 조성했다.

또 지난 1월 초 낙지가 서식하는 무안지역 주요 갯벌에 대한 분석을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 의뢰 kg당 1.54~1.73㎎의 게르마늄을 비롯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염이 풍부하고 낙지의 성육(成育) 생태환경이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낙지는 게르마늄 갯벌에서 서식해 타 지역산과 맛과 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올해 낙지지원회복 사업, 지리적 표시제 등록 준비 등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지역특산 명품브랜드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안낙지 아성에 최근 장흥군이 '장흥낙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흥군은 올해 낙지 본고장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낙지산업의 브랜드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흥지역의 연간 낙지생산량은 1천600여t(5개 읍·면 650 어가)으로 전국생산량의 22%, 전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득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장흥낙지'의 상당량이 타지역 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장흥군의 주장이다.

■ 장흥군

전국 생산량 22% 차지
낙지산업 주요사업 추진
서울 수산물직매장 개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토요시장 내 낙지음식점 3곳 신설 ▲서울에 수산물 직매장 개설 ▲회진면에 수산물위판장 및 유통센터 개설 등 낙지산업을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맛이 뛰어난데다 4계절 생산되면서도 장흥 낙지가 제 빛을 못보고 있다"면서 "장흥낙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명성도 되찾고 지역 어업인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화순 '이서 뽕엿'을 아시나요

고혈압·중풍 예방효과 명절 선물용 인기

뽕잎을 이용해 만든 화순 '이서 전통 뽕 엿'이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화순군 이서면 야사1리 주민 15명은 '전통 엿 연구회'(회장 김덕남)를 구성, 뽕엿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서 뽕엿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엿기름, 생강, 콩, 참깨 등 순수 우리 곡물과 당뇨, 고혈압, 중풍예방에 도움을 주는 뽕잎을 원료로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인기품목은 뽕엿·쌀엿 세트(2만원)이며, 올해부터 쌀조청과 전통 뽕엿·쌀엿으로 구성된 새로운 패키지 상품(3만원)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373-5575

/화순=조성수기자 css@

고흥에 우주천문과학관

2009년말 완공 … 40억 투입 천체만원경 등 갖춰

고흥에 우주천문과학관이 들어선다.

고흥군은 대형 천체망원경과 천체투영실, 시청각실 등을 갖춘 천문과학관을 40억원을 들여 2009 년말까지 건립키로 했다.

2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과학관은 군이 당초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인근에 건립, 시너지 효과를 거둘 계획이었으나 접근성이 열악, 새 후보지를 물색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천문과학관 주변에는 모노레일과 가족야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천문과학관과 내년 말 준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2010년) 등과 연계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영암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영암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들을 각 분야별로 모은 '달라지는 제도' 책자 650부를 발간, 배포했다.〈사진〉

68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부시책 가운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130건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

책자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농수산 분야 등 군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 76건과 교육, 재정 등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내용 54건이 수록돼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광산장학회 장학금 2억5천여만원 지급

광산장학회가 올해 25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2억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광산장학회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62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대학 재학생 200여명에게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학생 중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올해 32세의 중증 장애인(지체장애 1급)도 포함돼 있다.

광산장학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추천한 성적우수자와 각 동장들이 추천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광산장학회는 지금까지 1천246명에게 1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61억여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